

# 1. 화용론이란

## 1.1 화용론의 개념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은 그리스어의 ‘praktikos (actions, conditions for actions)’에서 온 용어로서 언어의 사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용론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다음이 그 예다.

- Charles Morris (1938: 30)

Pragmatics is the science of the relation of signs to their interpreters.

(화용론은 기호와 그 해석자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 Robert C. Stalnaker (1972: 383)

Pragmatics is the study of linguistic acts and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performed.

(화용론은 언어 행위와 그 행위가 실현되는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David Crystal (1985: 240)

Pragmatics is the study of langu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users, especially of the choices they make, the constraints they encounter in using language in social interaction and the effects their use of



language has on other participants in the act of communication.  
(화용론은 언어사용자의 입장에서, 특히 그들의 선택의 입장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언어사용자들이 의사소통의 행위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언어 사용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결과에서 당면하게 되는 제약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Alessandro Ferrara (1985: 138)

Pragmatics is the systematic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linguistic properties of utterances and their properties as social action.  
(화용론은 발화의 언어적 특징과 사회적 행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 Michael McCarthy (1991)

Pragmatics is the study of meaning in context, without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context.

(화용론은 상황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 없이 상황맥락 안에서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Herbert H. Clark (1996: 391)

Pragmatics needs to include the users and the addressee's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responses. All language use is "joint action", involving the speaker's meaning and the addressee's understanding. Any account of "using language" must include more than an analysis of the linguistic forms. Pragmatics seeks to explain chance, predictability, and surprise.

(화용론은 화자와 청자의 언어학적, 비언어학적 반응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언어 사용은 화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청자의 이해를 포함하는 '합동행위'이다. 언어 사용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라도 언어학적



형식의 분석 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화용론은 (언어 사용의) 확률, 예언, 그리고 놀람(창의적인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Jef. Verschueren (1999: 7)

Pragmatics is a general cognitiv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 on linguistic phenomena in relation to their usage in forms of behavior. (화용론은 언어 사용과 행동 방식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다.)

- Jacob Mey (2000: 6)

Pragmatics studies the use of language in human communication as determined by the conditions of society.

(화용론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모든 정의에서 일치하는 점은 화용론이 언어의 사용을 연구한다는 것이고, 언어의 사용은 사회적인 상황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의 사용에 동원되는 형식 및 언어 기능, 그리고 언어 사용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발화 상황 및 언어 사용 목적에 따른 전략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다른 영역에서와 같이 화용론도 거시적 연구방법과 미시적 연구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관심은 서기전 그리이스 철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가까이는 1920-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은 화용론이 언어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학자들의 관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학에서도 화용론을 크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언중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1.2 화용론의 학문적 위상과 정체성

화용론이 하나의 학문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Morris, Carnap, Peirce에 의해서라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들은 통사론이 기호와 기호의 관계를, 의미론이 기호와 그것이 전달하는 것의 관계를, 그리고 화용론이 기호와 기호사용자와 해석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보았다(Morris, 1938). 한마디로 화용론은 언어의 논리적인 형식이나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추상화된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의존적인 의미 현상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B. Malinowski와 R. W. Firth(1923)에 의해 “context of situation”의 개념이 도입되어 화용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context of situation”은 다음의 네 가지를 포함하는 ‘텍스트의 환경’이다.

- ① participants in the situation (대화참여자)
- ② the actions of the participants (참여자들의 행위)
- ③ other relevant features of the situation (상황의 다른 해당 요소)
- ④ the effect of the verbal action (언어 행위의 결과)

즉 발화의 참가자, 참가자의 행위, 상황의 다른 요소(물리적, 사회적 상황 등), 언어 행위의 결과(칭찬, 비난, 요청 등)가 모두 상황맥락을 구성하게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Ludwig Wittgenstein(1953)의 “Use Theory”<sup>1)</sup>도 화용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화용론이 아직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본격적인 연구는 John L. Austin(1962)과 John R. Searle(1969)에서 이루어졌고, H. Paul Grice(1967, 1975)에서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언어 사용에 대한 설명이 언어 구조를 얼마나 더 명쾌하게 기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Bar-Hillel(1970)에서는 화용론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는 화용론에서 발견되는 조각들을 기존의 통사론, 의미론의 틀에 넣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 뒤 Leech(1983), Levinson(1989), Mey(1993), Yule(1996)에 의해 화용론의 윤곽이 뚜렷이 그려지고 학문적 기초가 튼튼하게 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화용론적 이론이 통사론과 의미론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시도에서부터 다른 언어학의 영역인 역사언어학에서부터 어휘까지, 언어 습득에서 전산 언어학까지, 역양 구조에서 인지과학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화용론은 언어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음운, 형태, 통사, 담화,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화용론의 하위 분야를 다음의 1.3절에서와 같이 화용음운론, 화용형태론, 화용통사론, 화용의미론, 화용인지언어학, 화용사회언어학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화용론은 인접 학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용론의 인접 학문들은 순수언어학,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 담화분석, 민족지학 등이 있다.

순수언어학과 화용론의 차이는 문법성 대 적절성으로 대비될 수 있다.

1) Use Theory는 단어의 의미가 실제로 문장에 사용되었을 때 결정된다는 ‘사용설’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하자. 아래에서 ‘집’의 의미는 각각 (1)은 ‘건물로서의 집’, (2)는 ‘가문’, (3)은 ‘가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집’이라는 단어가 실제의 문장에서 모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우리집은 높은 곳에 있어.
- (2) 영화는 좋은 집에 시집갔어.
- (3) 철수네 집은 매우 화목해.



또한 언어의 구조 대 사용 양상, 문장(담화, 텍스트) 대 발화, 논리 대 화용 등으로 요약된다. 사회언어학과 화용론의 차이점은 사회언어학이 언어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규범이라면 화용론은 실제로 화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언제나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시사회언어학에서는 경어법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이 분야에서 화용론과 만나게 된다. 인지언어학에는 언어 습득 이론, 적합성 이론, 정신 공간 이론, 환유와 은유 등이 있고, 화용론이 만나는 지점은 적합성 이론, 환유와 은유 등이라 할 수 있다. 화행 이론도 화용론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Grice의 협력 원리도 화용론에서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좀더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담화 분석과 화용론이 만나는 지점은 지시와 지시어, 담화 표지, 결속과 응집성, 생략과 축약, 대용사, 주제와 초점 등이다.

민족지학 (Ethnography of speaking)과 화용론의 접점은 D. Hymes(1972)의 "SPEAKING", 문화적 배경과 화용론, B. Whorf(1956)의 상대성 이론 (linguistic relativism), Goffman(1981), Brown and Levinson(1987)의 공손법과 체면론<sup>2)</sup> 등이 있다. 물론 공손법과 체면론은 사회언어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의미론과 화용론과의 관계에서는 단어의 의미와 실제의 화용 의미, 문장의 의미와 화용 의미, 담화와 텍스트의 의미와 화용 의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화용 의미는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추론, 대화 함축, 함의, 전제, 관용 의미, 환유와 은유의 의미, 전략적 의미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최근 유럽의 화용론자들, Verschueren et al(1995) 그리고 Mey(1998) 등은 언어 사용의 모든 양상을 다 포함하는 더 사회학적인 개념의 더 넓은 화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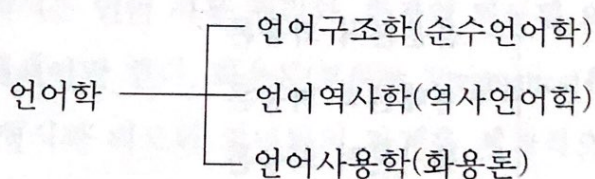
2) 이러한 이론들의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론을 지향하고 있고, Moeschler & Reboul(1994)은 더 좁은 의미의 화용론을 지향하고 있다. Bhatia & Ritchie(2004)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어학적, 철학적 화용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화용론의 영역을 함축(implicature), 전제(presupposition), 화행(Speech act), 지시(reference), 직시(deixis), 한정과 비한정(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더 나아가 화용론과 담화 구조, 화용론과 다른 분야들과의 접점, 그리고 화용론과 인지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화용론을 구성하는 요소도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순수언어학과는 달리 비언어적 요소도 많이 포함한다. 즉 언어적 요소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반하여, 비언어적 요소는 화자, 청자, 시간, 장소, 발화의 목적, 목적에 따른 전략 등이 포함된다. 화용론에서는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 대하여 거의 대등하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예를 들어 공손법 같은 언어 현상은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 요소이다.

본서에서는 화용론의 학문적 위상을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화용론은 종래에 언어학을 크게 구조-역사 또는 공식-통시로 나누던 것을 구조-역사-사용으로 삼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용론 역시 순수언어학과 같이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담화, 텍스트 등 언어 단위별로 연구가 가능하다. 화용음운론, 화용형태론, 화용통사론, 화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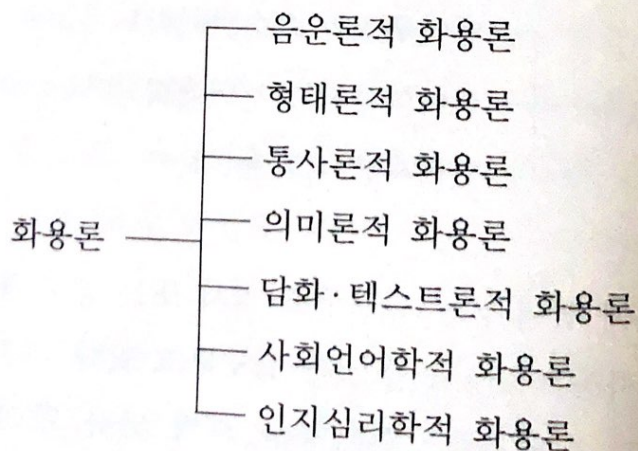
미론, 화용담화론 등과 같은 학문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3 화용론의 유형

화용론의 하위 분야 또는 유형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유형 분류가 다르다.

Jacob Mey(2001)는 화용론을 크게 거시화용론(Macropragmatics)과 미시화용론(Micropragmatics)으로 나누었다. 거시화용론에서는 상위화용론(Metapragmatics), 화용행위론(Pragmatic Acts), 문식성화용론(Literacy Pragmatics), 문화 간의 화용론(Pragmatics Across Cultures), 화용론의 사회적 현상(Social aspects of pragmatics)을 다루고 있고, 미시사회언어학에서는 상황(Context), 함축(implicature), 지시(reference), 화용원리(Pragmatic Principles), 화행(Speech acts), 약속(Promises), 화행동사(Speech Act Verbs),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을 다루고 있다. 한편 LoCastro(2003)에서는 화용론을 철학적 접근, 사회언어학적 접근, 인지적 접근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화용론의 하위 분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위의 분류는 우선 언어 단위별 유형화에 사회면과 인지면을 추가한 것이다. 본서에서는 이들 하위 분야 중 의미론적 화용론과 담화·텍스트론적 화용론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화용론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 1.4 언어의 기능

언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언어의 구조와 역사를 밝히는 순수언어학이 있고, 다음은 언어의 기능과 사용 양상을 연구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법에 맞춰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거나 문법에 맞는 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사고가 유연하기 때문이다. 즉, 판에 박힌 글자의 기본 의미대로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도, 은유적으로도, 창의적으로도 사용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한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언어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언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사용 원리와, 화자의 의도된 의미와 언어 형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화용론(話用論, Pragmatics)은 바로 이와 같이 사용된 언어 형식과 의도된 의미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용론의 연구 성과는 하나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어 사용 원리가 언어 구조 못지않게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언어의 사용 원리는 언어의 기능과 직결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언어의 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압축되어 논의되었다.

- ① 통보적 기능(제보적 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
- ② 의례적 기능: 판에 박힌 인사말 등 의례적인 대화 기능
- ③ 설명적 기능: 사물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통해 청자나 독자가 이해하게 하는 기능
- ④ 설득적 기능: 화자나 필자의 주장을 펴서 청자나 독자를 설득하는 기능

그러나 박영순(2001: 294-313)에서는 다음과 같이 15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 |             |            |
|-------------|------------|
| ① 정보 전달 기능  | ⑨ 협의 기능    |
| ② 친교·의례적 기능 | ⑩ 응락 기능    |
| ③ 설명 기능     | ⑪ 동의 기능    |
| ④ 설득 기능     | ⑫ 교훈적 기능   |
| ⑤ 요청 기능     | ⑬ 비판 기능    |
| ⑥ 약속 기능     | ⑭ 칭찬 격려 기능 |
| ⑦ 선언적 기능    | ⑮ 광고 기능    |
| ⑧ 판단 기능     |            |

위의 기능 분류들은 각각의 논리가 있으나, 또 다른 측면의 기능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             |
|---------------|-------------|
| ① 언어, 기호적 기능  | ⑥ 일상생활적 기능  |
| ② 예술적, 문화적 기능 | ⑦ 상업·경제적 기능 |
| ③ 논리적 기능      | ⑧ 정치적 기능    |
| ④ 의사소통적 기능    | ⑨ 행정적 기능    |
| ⑤ 인지적 기능      |             |



이와 같이 언어의 기능은 다면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문어나 구어나에 따라서 그 기능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언어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좁게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넓게는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느냐에까지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기관과 기관의 의사소통, 국가와 국가 간의 의사소통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